밀그램 실험은 사람이 권위있는 잔인한 명령에 얼마나 복종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실험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실험자의 발언은 피실험자가 실험을 중단하지 않고 끝마치도록 이끌었으며, 실험 결과 피실험자의 65%가 450V의 강한 전기자극을 주었다. 즉, 65%의 피실험자들이 권위주의적 태도를 가지며 권위에 대해 맹종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실험에서 실험자와 피실험자 중 누구의 잘못이 더 크며, 책임이 더 큰 것인가? 해당 문제에 대해 필자는 피실험자, 즉 전기 충격을 가하는 버튼을 누른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이 판단의 근거로는 첫째, 피실험자는 실험자의 강요를 거부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 피실험자가 버튼을 누르는 것을 주저하거나 거부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 “실험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며 실험자가 버튼을 누를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협박이 아닌 “계속하십시오”, “꼭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와 같은 단순한 지시였으며, 강제성이 높은 강요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실험자는 실험자의 요구를 거부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 450V까지 전기자극을 준 피실험자를 제외한 나머지 35%의 사람들이 전기 자극을 450V까지 주지 않은 사실도 피실험자 본인이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피실험자들은 실험자의 권위를 바탕으로 권위주의적 태도를 지녔으며 실험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을 주저하고 거부하던 피실험자들 중 일부는 “실험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실험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판단하여 버튼을 눌렀다. 이는 본인이 단순히 권위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여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행한 것이다. 즉, 대부분의 피실험자들이 실험자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권위주의적 태도를 취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그릇된 태도이다. 셋째, 피실험자들은 자신들이 버튼을 누르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전기 충격 기계에 300V 이상의 충격은 위험하다는 표시가 있었으며, 문구를 통해 위험성을 판단하는데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실험자가 학생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기에 충분했다고 할 수 있다. 문구를 통해 피실험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전기 충격을 지속적으로 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앞선 근거들을 통해 필자는 실험자보다 피실험자에게 행위에 대한 잘못과 책임이 크다는 것을 주장한다. 물론 실험자도 잘못된 행위를 피실험자에게 계속해서 요구했음으로 책임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험자의 잘못된 요구를 스스로 판단하여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을 가한 피실험자의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피실험자들은 어떤 태도를 지녔어야 했는가? 피실험자들은 자신이 단순한 대리자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항시 자각하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녀야 한다. 또 권위와 서열은 특정 상황에서 적응이 가능하지만 비도덕적인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정당화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밀그램 실험은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권력에 대한 복종을 바탕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악행은 특별한 사람만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